

# “3000억 추경 반영” vs “보여주기 이벤트”

### 여야 日수출규제 해법 충돌 민주 대책특위 회의 대응책 논의 한국당 “총리 해외순방 취소”

여야는 1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가 최근 국회 방일단 파견에 뜻을 모으며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다졌으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우려 속에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가 “정치용 이벤트”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추가한 추경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기업을 돕기 위한 국회의 대응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상당 규모로 추가 투입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 논의 끝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에 들어갈 최대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

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

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 이벤트로 끝났다”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둘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환경 규제 및 자본시장 규제, 확실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당은 또 대응책 마련의 중추인 야권 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순방을 고리로 대어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권 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며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순방 취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여권 공격에 나섰다. 지상욱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미리 정해진 스케줄이라고는 하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경제·외교적 무능으로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윤석열 거취’ 톤 조절 공개 언급 자제하고 고발도 미뤄

### “자진 사퇴” 공세 수위 약해져 총선 앞두고 득보다 실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톤’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당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세 수위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우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또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윤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미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로 현재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수사대상으로 오른 상태에서 검찰과 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수사 결과가 의원들의 내년 4월 총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윤 후보자를 어차피 임명할 것인데 정치적으로 몰아붙여봤자 감정만 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전 대표는 “엉뚱한 짓을 해 (윤 후보자의) 악을 잔뜩 올려놨다”며 “지금 임명되면 바로 (한국당 의원들은) 을(乙)이 돼 버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재송부 시한까지 한국당의 ‘자진 사퇴’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 주대환 혁신위원장 사퇴 바른미래 제파갈등 다시 수면위로

### “당 깨려는 검은 세력에 개탄” 손대표 거취 놓고 진통 재연

바른미래당이 다시 내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혁신위 내부에서 손학규 대표 재신임 여부를 놓고 충돌을 거듭한 끝에 11일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이미 수습할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결국 을 추석 이전 정계개편을 촉발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혁신위 출범 10일 만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여의 활동 기간 제가 본 것은 제파 갈등의 재연”이라며 “혁신위 안에서 (제파 갈등이) 그대로 재연되는 모습에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

에서 조종해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역부족을 느끼고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은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조금만 지켜보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외에서 사실상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바른정당계 및 안철수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에 대해 “무슨 당의 미래 발전 전략이 있다. 당의 혁신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을 무효화하자고 간곡히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이 이날 전격 사퇴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제파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가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송정역 ‘광주다움’ 담아 재탄생

### 연결통로 등 리모델링 완료

### LED 바닥 신호등 설치

### 이이남 미디어아트 표출

### 에스컬레이터 2대 신설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이 시민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광주다움이 반영된 역사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을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역사로 조성하기 위해 역사 내 관광안내소와 연결통로를 리모델링하고, 발광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역내부 관광안내소에 발광다이오드(LED)바를 설치해 이이남, 진시영, 박상화, 임용현 등 세계적인 미디어아트작가의 미디어아트를 표출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알린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서석대 조형물을 설치했다. 광주송정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역 대 등 6개소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행자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화장실 22개소(남자 12, 여자 10)

를 증축했다. 에스컬레이터 2대도 신설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사 증축 사업도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송정역사가 호남의 중심 관문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코레일과 광주송정역 여객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주차빌딩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은 지상 6층 1600㎡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1년 6월 완공되면 광주송정역 이용객의 주차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송정역은 KTX 고속철도 정차 이후 하루 평균 주중 1만7760명, 주말 2만 4507명(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여객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광주시 송상진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철도 이용객의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광주의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써 광주송정역 일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광주송정역사 증축 등 시설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나주혁신도시~국도 1호선 연결도로 개통

국도 1호선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북측을 잇는 연결도로가 개통, 차량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1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 북측을 지나는 국도 1호선 나주시 산포면 구간과 혁신도시 북측 우정사업정보센터 인근을 잇는 연결 도로가 오는 13일 정오 개통된다.

길이 986m의 4차로로, 국도 1호선과 입체교차로로 연결돼 국도 1호선에서 혁신도시 북측으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다. 국도 1호선과 혁신도시 간 원활한 차

량 흐름을 위해 입체형 교차로를 도입하고 발광형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또 도로의 내·외부 경관 향상을 위한 식재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and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전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아 지난 2017년 1월 착공했으며 도로 개설에 총 259억원이 투입됐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혁신도시 접근성이 높아져 도시 활성화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탄력...개관 운영 조례 의결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최근 도립미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광양읍 옛 광양역사 1만 1580㎡ 부지

에 세워지며 내년 10월 개관이 목표다.

전남도는 조례안 통과에 따라 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한 ‘미술관 준비단’을 4급 단장의 ‘미술관 개관 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술관에 전시할 미술품 구매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